

# 그 웃음의 행방을 묻는다



소설가 이기호

갈팡질팡하다가 그럴 줄 안 것은 작가뿐이었다. 성령이 충만한 최순덕이나, 말년의 수난으로 가득한 울보리 선생의 행적은 어떤가. 예상만 해도 허파파리 안쪽에서 꼬물꼬물 올라오는 웃음과 통후추가 들어간 듯 비강이 매캐해지는 페이스스는 갈팡질팡은커녕 단단하고 올곧기만 하다. 웃기다고 웃기다고, 안 웃기다고 안 웃기다고 우기고 우긴 인터뷰는 또 어떨까.

글 조경아 칼럼니스트 | 사진 박정훈

## 나는 웃기는 소설가가 아니다

**문화예술** 만나서 반갑다. 원래는 ‘소설 안의 유머’를 주제로 소설가들의 좌담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소설가들이 모두 고사하는 바람에 제일 친절하게 응해준 소설가 이기호의 ‘유머코드에 관한 인터뷰’가 되어버렸다. 좌담과 인터뷰를 싫어한다니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인터뷰가 되도록 애써보겠다. 새 책을 쓰고 있다고 들었다. 어떤 작품인가?  
**이기호** 〈문예중앙〉에 연재하기로 한 작품이다. 첫 장편이라 부담이 있는데, 제목은 〈울보리 선생 말년 수난기〉다. 울보리는 춘원 이광수의 호인데, 그의 말년 행적에 관해 조합한 이야기다.

**문화예술** 원하던 원하지 않든 소설가 이기호라는 이름 가까이에 붙어다니는 ‘유머와 위트’가 여전히 핵심으로 보이는 작품인가?  
**이기호** 모르겠다. 기본적으로는 이광수라는 문제적 인간을 다루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의 어떤 정사로 굳어진 것들이 무거울 수 있겠지만 조금 어깨를 풀어 다른 측면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라고 해야 할까? ‘희화화’로 말할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불편하다.

**문화예술** 소설가라서 그런 건가? 공들여 단어를 고르는 것은?  
**이기호** 내가 가진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흐를까봐 그런다. 조금 진지하고 딱딱한 것들이 말랑말랑하게 읽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 난 딱딱하고 진지한 것에 알레르기가 있다. 조금 입체적으로 보이고 싶고, 비틀어 보이고 싶은 것도 없지 않아 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내 의도라면 의도일 것이다. 유머코드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게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한 것들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싶던 중에 나온 것이다. 그렇게 극단으로 몰다보면 원하는 상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인물들을 갈 데까지 가게 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희화화가 생긴 것 같다. 내가 노리는 것은 극단으로 가서 알레고리가 생기지 않을까 했던 것인데, 웃음의 코드가 핵심인 것으로 오역된 것 같다.

**문화예술** 소설가라서 그런 건가? 공들여 단어를 고르는 것은?  
**이기호** 내가 가진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흐를까봐 그런다. 조금 진지하고 딱딱한 것들이 말랑말랑하게 읽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 난 딱딱하고 진지한 것에 알레르기가 있다. 조금 입체적으로 보이고 싶고, 비틀어 보이고 싶은 것도 없지 않아 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내 의도라면 의도일 것이다. 유머코드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게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한 것들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싶던 중에 나온 것이다. 그렇게 극단으로 몰다보면 원하는 상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인물들을 갈 데까지 가게 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희화화가 생긴 것 같다. 내가 노리는 것은 극단으로 가서 알레고리가 생기지 않을까 했던 것인데, 웃음의 코드가 핵심인 것으로 오역된 것 같다.

**문화예술** 인물들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희화화와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기호** 그렇다. 그런데 내 작품의 인물들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었다. 돈 많고 배운, 지배계급의 인물들이었다면 다를 수도 있는데, 관심 둔 친구들이 사회적 소수거나 약자여서 그런 것 같다. 무시받는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몰다보면 어쩔 수 없

이 희화화되지만, 무시했던 사람들을 웃기면서도 찢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런 것들 전부를 웃음의 코드로 해석하니 안타깝기도 하다. 요즘은 정형화되는 것 같아 자제하려는 중인데, 나 스스로를 표절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고백하자면 두번째 작품집인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에는 마감에 쫓겨서, 내가 쉬워서, 나 스스로 정형화되어 몰고간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점을 제어하기 위해 몇 편은 전혀 딱딱한 얼굴로 쓰려고 노력하기도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두 개의 이미지가 싸우고 있다. ‘무엇을 쓸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졌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을 할까 말까 하면서 말이다. 의도적으로 유머와 웃음을 위해 작품을 쓴 거라면 그 속에서 번민 같은 게 덜할 텐데, 아니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다. 내 또래 작가들도 이런 내용으로 많이 언급되는데 그 중에 유머와 위트를 의식하면서 쓰는 작가는 거의 없다. 이야기를 위한 배경처럼 들어가는 것이지. <웃찾사>와 경쟁할 생각은 없다.

#### 개그와 유머는 동격이 아니다

**문화예술** <웃찾사>와 비교했을 때 웃음의 밀도가 다를 뿐 빈도는 비슷하다. 절반은 농담이다. (웃음) 의도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또 원하는 것 같지도 않지만 당신은 몇몇 소설가와 하나의 계보로 엮이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창작과 비평>에 문학적 수사가 아니라, 작품이 아니라, 유머를 위해 유머를 쓴다는 비평이 게재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기호** 내 소설에 대해서는 평단과 독자 모두 호불호가 명확하다. 소설이라는 게 정답이 없다. 내가 아무리 색깔을 바꾸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그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쓴다 해도 평가는 마찬가지로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첫 작품집을 내고는 매우 민감했다.

**문화예술** 어떤 반응이 가장 아팠나?

**이기호** 포즈로서 소수와 약자를 대변하고, 포즈로서의 정치적 올바름이 아닌가 하는 비평들이 그랬다. 그것은 내가 정말 그랬나 하는 것이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이고, 또 그런 비평에 대해 스스로 조금이라도 당당하지 못하다면 더 공부하고 깨져야 할 문제여서, 아팠지만 신경 쓸 문제로 생각했다. 그러다가 두번째 책이 나올 때는 내 작품과 같이 갈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인을 위한 소설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안 좋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소설을 쓰다보면 백 퍼센트 스스로 넘어진다. 나 역시 첫 작품집을 낸 신인작가로서 평론가의 평가에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평론



가의 눈치를 보면서 쓴 작품은 백 퍼센트 쓰러졌고, 그래서 약간의 슬럼프가 찾아왔지만 더 열심히 썼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모르겠지만 난 내 소설이 너무 슬프다. 소설가가 좋은 점은 자기 작품에서 집필 당시의 마음풍경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내 소설을 보면 그래서 슬프다. 슬퍼지기 전에 약간 웃는, 뒤통수치는 눈물이 먼저 보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가기까지의 뒤통수보다 과정의 웃음이 먼저 들어오겠지만... 읽는 사람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 읽히는 거라 어쩔 수가 없다. 한번은 인터넷 서점에 글이 하나 달렸는데, “뒤통수 소설 쓰냐, 웃찾사에 가서 개그맨하고 경쟁해라”였다. 마음이 아팠다.

**문화예술** ‘웃기다. 재미있다’ 말고 다른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것을 못 찾겠다. 어쨌든 마지막에 슬프거나 가슴이 먹먹해지더라도, 그 사이에 빠져나오는 웃음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당신의 작품이다. 누군가는 그게 크게 보이고, 또 누군가는 그것이 만들어낸 다른 감정이 크게 보이는 것이겠지만 말이다. 대개는 웃기다고 하는데 본인은 하나도 안 웃기다고 우기는 당신의 소설 말고, 당신을 웃기는 소설은 무엇인가?

**이기호** 관념소설을 쓰는 작가인 정영문의 소설. 다른 사람들은 딱딱하다는데 나는 너무 너무 웃기다. 또 설정으로 몰고가는, 웃으면서 깔깔거리게 하는 작가가 배수야. 재미

있고 웃긴 작가는 박완서다. 웃기는 할머니지만, 또 대단히 냉소적이다. 치고받는 말들은 아줌마 대화 수준의 유머인데, 그걸 절정으로 끌고가는 게 되게 웃기다. 기자처럼 진실을 놓고 딱딱하게 사실을 열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보거나 비틀거나 직감에 접근하는 것이 소설가의 일이다. 그러니 소설가에게 유머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예술가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것이다. 박상룡의 작품처럼 어렵고 딱딱한 소설에도 유머를 숨겨놓거나 한 번 더 덮거나 진중하게 한 것이지 유머가 없는 게 아니다. “예술가의 진정한 적은 정치인이 아니라 유머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 밀란 쿤데라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문제는 그 감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있을 것이다. 박완서처럼 유려한 유머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그 감각 자체가 부끄러워 무뚝뚝한 얼굴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나나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자랑스러워하지도 않는다.

#### 희가 강력하면 비도 강력하다

**문화예술** 유머가 대세가 되는 문학, 그것으로만 읽히는 소설. 이것을 세대의 특성으로 봐야 하나?

**이기호** 그렇지도 않다. 우리 세대에도 진지한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많다. 오히려 유머로써의 접근은 발붙일 수 없었는데 문학적 다양성이 인정되고 있는 시대라서 발표라도 하고 책이라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독자들도 문학적 엄숙주의를 벗어났고, 인터넷 소설 등도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사회적 흐름도 없지 않다. 삶의 통찰을 담은 진중한 소설을 쓰는 친구들의 작품도 미덕이 있는데, 표면적인 것들로만 비춰져 나나 나와 비슷한 소설들이 대세라는 편견을 줄까봐 없지 않아 조심스럽다. 진지한 자세를 견지한 소설들이 사장될까봐 염려되기도 하고.

**문화예술** 앞서 딱딱하고 진지한 것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촉발은 무엇인가?

**이기호** 사실 나는 그런 소설로 습작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허구라는 미명 아래 내가 모르는 사람을 쓰고 있구나 싶었다. 반성적인 측면이 컸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포즈를 벗어던지고 두어 편 더 쓴 다음에 다시 쓰려고 하니까 남부끄러워 못 쓰겠더라. 두번째 책이 나오고 반발심이 많이 생겼다. 자기를 갱신하면서, 자기를 배반하면서 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든다. 미학적 완성도, 작품 내적인 완결성으로 인정받는 소설을 쓰고 싶은 것이다.

**문화예술** 당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소설은 어떤 것인가?

**이기호** 한 편 속에 희비쌍곡선이 있는 게 좋다. 이분법적인 선악이 아니라. 진지하게 나가다가 대사 하나가 확 웃기는. 정영문도 그렇다. 3페이지까지만 읽으면 아, 관념으로 가는구나 하다가, 두 인물이 만나 대화를 하는데 전혀 엉뚱한 순간에 폭발적으로 웃긴다. 그러다 확 진지해진다. 너무 좋다. 많은 작품들 안에 희비가 교차하고 그러는데 그걸 보지 않고 하나만 보는 게 문제다. <태백산맥>을 봐도 작은 일상들은 너무 희극적이지만 전체적인 톤은 현대사의 비극 자체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왜 희비의 쌍곡선 중에 어느 하나만 보려고 하나.

**문화예술** 희가 너무 강력해서 비가 덮인 것 아닐까?

**이기호** 희가 강력하면 비도 강력한 것 아닐까?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 역량의 한계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 소설은 비가 강해 희는 볼 수 없었다는 그런 차원이다. 조금 더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 전체적으로 못 보는 게 문제다. 최근 언급되는 박형서만 봐도 그렇다. 한두 편을 빼면 굉장히 진지한데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음란성 연구> 그 한 작품 때문에 내가 있는 범주로 넘어왔다. 그 친구, 불쌍하다.

**문화예술** 왜 그럴까?

**이기호** 1917년부터 소설의 계보를 훑어보면, 도가 된 사람이 글을 쓸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 희극적인 측면이 나오면 도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인데, 다행히도 서서히 깨지고 있는 것 같다.

**문화예술** 마지막 질문으로는 뜬금없겠지만, ‘있다’와 ‘없지 않아 있다’는 완전히 다른 말이다. 소설에서는 못 느꼈는데 말할 때 보니 ‘있다’라고 끝날 말에 ‘없지 않아 있다’를 쓴다. 열 배 정도는 쓴다.

**이기호** 간단하게 말해서 소심해서 그렇다. 인간이 소심하면 확정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내용은 ‘있다’는 건데, 소심해서, ‘버릇화’되어서. 깨지고 혼나본 사람들의 말투다.

글쓴이 **조경아** <인 서울 매거진>을 거쳐 <GQ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으며, 문화계의 다양한 표정을 담아내는 인터뷰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다.